

큰스님 수행한담

욕망·번뇌 없애는 길



◇76년 조계사 주지사절 50여개국 주한 외교관·대사 부인들을 초청해 조계사 불교회관 1층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했다. 사진 중앙이 혜산스님.

반성을 하게 됩니다. 농도가 깊어지면 울기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깨끗한 본심을 드러내게 하고는 마지막 1주일을 화두참선하게 합니다. 당시 불교전동회를 거쳐 일대사 도리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불자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처럼 은사스님은 출가 재가를 막론하고 수행자들을 지도하신 훌륭한 조실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다고 하지만, 특히 부처님 공부에 원래 본인이 하려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을 내도록 해주는 것은 조실의 역할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결국 본인이 할 일이지만 물을 마시도록 우물가로 데려가는 것이 조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수좌들이 방심하지 못하게

제사를 모시러 내소사에 갔다가 어찌나 절이 퇴락했는지 대단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인연이 주어지면 반드시 내소사를 복원해야지' 하는 마음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83년 내소사 주지를 맡게 됐고 즉시 10년복사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기간은 지연됐지만, 마무리를 하고 있고 출가 재가자들이 공부하는 선방으로 자리잡도록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불자들은 확실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100년살이 생이 전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무한한 것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일선상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이 참나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가 있

“지혜로움의 척도는 자비심 배움이 많아도 자비심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것을 권합니다. 나보다 어려운 이들에게 동정이라도 보시하는 것부터 실천해보라는 것입니다. 불자들에게 가장 귀에 익은 말하면서도 실천에는 비교적 인색한 편인 것이 보시입니다. 불자들은 대개 보시라고 하면 절에 시주를 한다거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희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더러는 보시를 함으로써 그에 상응한 대가가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기대 속에서 하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들이 보시를 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어디에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보시를 하더라도 보시를 하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공덕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보시는 그 목적이 원대한 만큼 그 과보 역시 큰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보시는 연민 때문에 하는 보시, 남을 인격적으로 해 주고자 하는 보시, 모든 성인의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보시, 온갖 번뇌를 깨고자 하는 보시, 열반에 들어 생존을 끊고자 하는 보

그러므로 이같은 마음은 이기심에 가득한 어리석은 사람에게서는 결코 걸음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배움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비심이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일지무식이라도 자비심이 많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비록 무식할지라도 자비심이 많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결코 유식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옛 성인들 가운데는 물질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아낌없이 보시함으로써 마음의 때를 말끔히 씻어내고 마침내 도를 이루신 분들이 많았고,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굶주린 짐승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몸을 버린 일도 있으셨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행을 보받아 이를 실천함으로써 자신도 도를 이루겠다는 각오로 하는 보시가 지혜로운 사람의 보시입니다. 보시는 인간을 괴롭게 하는 욕망 번뇌를 없애주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다 채울 수 없지만, 주는 마음으로는 곧 자신의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참다운 보시는 밖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고통에서 구제하는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안으로는 자신의 탐욕을 제거함으로써 부처님과 똑같은 본원성품을 깨닫게 하는 일석이조의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진 탓에 직장에서 쫓겨 나고,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아주 좋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그 많은 재산을 지혜로운 보시에 쓰라는 것입니다. 보시는 단지 재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재물이 많아지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밤 한그릇을 보시한 부인에게 하나를 씹어 열을 남기고, 열을 씹어 백을, 백을 씹어 천을, 천을 씹어 만을 남가 마침내 진리의 도를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보시라도 그것이 씨앗이 되어 마침내 상상할 수 없는 큰 공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선과 보시의 생활화로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그 씨앗이 인연이 돼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정리=위령관 기자 (yryui@buddhapia.com)



◇ 대담을 하고 있는 서용방장(사진 왼쪽)과 이따하시 종정.

“선불교로 인류병폐 치유”

대담 서용스님-이따하시 日조동종 종정

일본 선종 최대종파인 조동종의 이따하시 교우수(板橋興宗·73) 종정이 지난 24일 방한 3박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갔다. 이따하시 종정은 방한기간중 조계종 고불총림 백암사 방장 서용스님과 '21세기 선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대담을 가진데 이어 중앙승가대학 비구니 수행관과 불교방송·TV를 방문하고,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예방 환담을 나눴다. 동북(東北)대학 종교학과를 졸업한 뒤 대성사 주지를 거쳐 지난해 종정에 오른 이따하시 스님은 현재 총지사 방장을 겸임하고 있기도 하다. 조동종은 현재 사원 1만5천여명에 승려 1만6천여명, 신도 6백94만명이 있으며, 구락대학 등 교육기관을 다수 운영하고 있다. 서용스님과 주요 대담내용을 소개한다. 이따하시스님 : 일본불교는 한국불교에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일본 조사 스님들이 중국에서 법을 구해오기도 했으며, 이 점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두 나라의 불교는 다른 점이 많다. 그리고 두 나라 불교간의 실질적인 교류가 없었던 점은 안타깝다. 이런 자리를 계기로 깨달음을 위한 순수한 교류가 이뤄졌으면 한다. 서용스님 : 지난해 가을 경도에 있는 모심사(임제종 본산)에 갔을 때 그곳 화원대학 부학장과 현대의 과학을 질문명으로는 인간정신의 타락을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다. 불교, 특히 선사상에 의지해 서로 협력하고 인류를 구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더니, 일본스님들은 아직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따하시스님 : 선은 종파에 구애될 수 없는 대자연의 질서에 의지해 살아 가는 것을 기본 자세로 삼는다. 선사상이야말로 앞으로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사상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법을 초월해 선사상이 펼쳐지도록 해야 한다. 서용스님 : 철학은 인간만을 중심으로 삼고 모든 사물을 부차적으

로 보는데 문제가 있다. 서용스님 : 자연과 인공 등 인공이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거기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불교는 모든 사물을 똑같이 본다. 선사상이 21세기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도 이것이다. 도덕이냐 양심, 우주의 원리를 무시한 철학이나 가르침은 매우 위험하다. 이따하시스님 : 한국에는 스님이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 일본에서는 주지가 되기 위해 단기간 수행을 할 뿐 다시 세속으로 돌아간다. 한국처럼 도덕적으로 건강하고 바르게 서 있는 나라가 풍부한 문명을 이룬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원과 무기만으로 인류를 구할 수는 없다. 서용스님 : 논리와 경제력으로도 인류를 구할 수는 없다. 이따하시스님 : 한국에는 여러 종교가 있다. 어떻게 공존하고 있으며,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서용스님 : 종교의 기본정신은 박애정신이다. 서로 협력하고 교류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도 이런 점에서 다소 부족하다. 얼마전 독일의 어떤 신부가 여기에서 참선공부를 하고 있는데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따하시스님 : 좌선은 더 이상 불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좌선하며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더욱 잘 될 것이다. 사실 일본불교는 순수한 불교라고 보기는 어렵다. 선도 역시 마찬가지다. 절에 가면 신사가 있는 것이 그 예다. 일본선이 한국처럼 순수하지는 않지만 민중에 쉽게 파고드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다. 민중포교에 대해서는 한국불교도 한 번 짚어봐야 할 문제다. 서용스님 : 방문해 주셔서 고맙다. 양국불교가 더욱 화합할 수 있길 바란다. 장성 백양사=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믿음 부족해서 중생살림 어려움 연속 믿고 참회하고 실천하면 고통벗어나”

살피셨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수좌의 일거수 일투족을 예의 주시 관찰하시고 감시도 마음을 멍하게 놓고 살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이제 세수로 봐도 스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늘 죄송스럽고 합회하게 됩니다. 스님께서 주신 법명이 너무나 예민해서 지금은 스스로 우암(愚岩)이라 법호를 지었습니다. 당초 10년 계획을 세웠던 내소사 복원 불사도 선방을 완성하고 사지작업을 마치면 모두 끝납니다. 설선당(說禪堂)이 원래 선방이어서 그자리에 다시 공부하기 좋은 선방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소사는 전통깊은 선도량입니다. 지장암에서 출가해 처음으로 백파스님

습니다. 중생의 살림은 이것을 믿지 않으려 하고 부정하려 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모든 것은 자기 노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부처님법을 만난 불자들은 자기 노력에 따라 성불할 수 있다는 확실한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은 이미 부처님이 되겠다는 믿음을 심어놓았기 때문에 오늘 어려워도 내일을 향한 우리는 희망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단박에 경성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습(習)이 쌓이고 쌓여 이루어지는(成) 지혜를 터득하실

시를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밑바탕에는 모두 이런 마음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불심(佛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살인강도라도 어린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 거릴 때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살인강도의 마음속에도 불심, 즉 비심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즐겁게 해주고 남의 고통을 없애주는 마음이 합쳐져서 자비심이 됩니다. 자비심은 어리석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자비심이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비의 신념은 너와 내가 서로 다르지 않은 똑같은 중생, 아니 똑같은 사람이라는 근본적인 인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천왕산 본각사 삼존불 점안식 및 봉불법회
수도 서울의 관문인 양천구 목동 천왕산의 지장기도 도량 본각사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웅보전이 완공되어 삼존불 점안식 및 봉불기도 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동참 인연을 다겁생애 지은 무명업장과 죄업이 쇠멸되어 좋은 인연속에서 무무복락 누리 시읍소서.
- 아 래 -
☎일 시 : 1999년 4월 1일(음 2월 15일) 오전 10시
☎장 소 : 서울시 양천구 목2동 산8번지 본각사 대웅본전
☎문 의 : 02-651-0076/0049, 655-0012 FAX) 655-0013
본각사 주지 대봉 벽애 합장